



한국자산관리공사, 창립 63주년 기념식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2일 창립 63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권남주 사장은 임직원들에게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제주체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우리은행, 일산 전통시장 ‘장금이 결연’ 체결

우리은행은 지난 1일 일산 전통시장과 ‘장금(場金)이 결연’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우리은행은 이번 협약에 따라 전담창구 마련, 결제 단말기 지원, 금융사기 피해 예방 교육 등에 힘을 보탠다. 송운홍 우리은행 금융소비자보호그룹장(왼쪽 두번째), 박해군 일산 전통시장 상인회 회장(왼쪽 세번째) 등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우리은행



롯데홈쇼핑, ‘숨;편한 포레스트’ 13호 착공

롯데홈쇼핑이 지난 1일 서울 노원구 지체장에 특수학교인 서울정민학교에서 장애 아동 생태 교육을 위한 친환경 녹지 공간 ‘숨;편한 포레스트’ 13호 착공식을 진행했다고 2일 밝혔다. 이도규 롯데홈쇼핑 커뮤니케이션부문장(오른쪽부터), 오재준 서울정민학교 교장, 이미경 환경재단 대표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롯데홈쇼핑

**태광그룹 일주학술문화재단
33기 해외박사 장학생 선발**

태광그룹 일주학술문화재단은 ‘2025학년도 33기 해외박사 장학생’을 선발한다고 2일 밝혔다. 장학금은 유학 국가에 상관없이 1인당 12만 달러다. 5년 이내 8학기 동안 지원하며 입학 후 출국과 졸업 귀국 시 항공료도 지원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200만원 한도 내 연구보조금을 지원한다. 신청은 이달 2일부터 27일까지며 일주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선발 전형은 서류심사와 면접 심사로 이뤄지며 7월 종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양성운 기자

인사

◆광주과학기술원스고등광기술연구원장 고도경

부음

- ▲임영례씨 별세, 이상훈(현대엘리베이터 경영지원본부장 전무)·현숙·인숙씨 모친상, 이경열·홍순영씨 빙모상, 심지성씨 시모상=2일, 서울대학교병원장례식장 1호실, 발인 4일, 02-2072-2010
- ▲김종선씨 별세, 오창호(LS MnM 안전환경지원부문장)씨 모친상=2일 오전, 부산 인창병원 장례식장 401호, 발인 4일, 051-464-5858
- ▲박동순씨 별세, 김준영(경기남부경찰청장)씨 장인상=2일, 경기 팽택 제일장례식장 3층 특실, 발인 4일. 031-611-1144

‘삼성호암상’ 수상자 발표... 신석우·정종경 등 6인

호암재단, 김승우·김동해 등 선정 오는 7월 수상자 강연회 개최 예정

호암재단이 2일 ‘2025 삼성호암상’ 수상자를 발표했다. 학술, 예술, 사회봉사 분야에서 세계적인 업적을 이룬 6명으로 선정됐다. 올해 수상자는 ▲과학상 물리·수학부문 신석우(47) UC버클리 교수 ▲과학상 화학·생명과학부문 정종경(62) 서울대 교수 ▲공학상 김승우(69) KAIST 명예교수 ▲의학상 글로리아 최(47) MIT 교수 ▲예술상 구본창(72) 사진작가 ▲사회봉사상 김동해(60) 사단법인 비전케어 이사장 등 총 6명이다.

올해 수상자에게는 상장과 메달, 상금 3억 원이 수여되며, 시상식은 내달 30일 열린다. 과학상 물리·수학부문의 신석우 교수는 현대 정수론 발전에 기여한 세계적 수학자로, ‘랭글랜드 추측

의 다양한 사례를 확립하며 수학의 경계를 확장했다. 과학상 화학·생명과학부문의 정종경 교수는 파킨슨병 원인 유전자의 작동 기전과 기능을 최초로 규명하며 퇴행성 질환 연구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공학상 수상자인 김승우 교수는 펨토초 레이저를 활용한 초정밀 광계측 기술을 개척해 반도체, 디스플레이, 인공지능 거리 측정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활용될 기술을 개발했다.



과학상 신석우 UC 버클리 교수, 과학상 정종경 서울대 교수, 공학상 김승우 카이스트 명예교수, 의학상 글로리아 최 MIT 교수, 예술상 구본창 사진작가, 사회봉사상 김동해 비전케어 이사장

의 다양한 사례를 확립하며 수학의 경계를 확장했다. 과학상 화학·생명과학부문의 정종경 교수는 파킨슨병 원인 유전자의 작동 기전과 기능을 최초로 규명하며 퇴행성 질환 연구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공학상 수상자인 김승우 교수는 펨토초 레이저를 활용한 초정밀 광계측 기술을 개척해 반도체, 디스플레이, 인공지능 거리 측정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활용될 기술을 개발했다.

의학을 수상한 글로리아 최 교수는 면역체계와 뇌 발달 간의 연관성을 연구해 자폐증과 같은 뇌 질환의 원인을 규명하고 치료 가능성을 제시했다. 예술상의 구본창 사진작가는 한국 전통미를 재해석한 사진 작품으로 세계적 명성을 쌓아왔으며, 한국 현대 사진예술 발전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았다. 사회봉사상 수상자인 김동해 이사는 국제실명구호NGO ‘비전케어’를 설립해 39개국에서 23만 명이

의 시각장애인을 치료하며 인류애를 실천했다. 호암재단은 1991년부터 삼성호암상을 통해 학술, 예술, 사회 발전에 기여한 한국계 인사를 선정해 왔다. 올해로 35회를 맞이한 삼성호암상은 총 182명의 수상자에게 361억 원의 상금을 수여했다. 한편, 호암재단은 오는 7월 삼성호암상 수상자 등 최고의 석학들을 초청해 청소년 대상 강연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혜민 기자 hyem@metroseoul.co.kr

영남권 산불피해 복구 지원

대한상의, 성금 8억 전달... “모금·기부 이어갈 것”

전국 73개 상공회의소 성금 조성 “경북, APEC 열리는 중요 지역”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사진)가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성금 8억 원을 기부한다고 밝혔다.

성금 조성에는 대한상의를 비롯한 전국 73개 상공회의소가 참여했으며 구호 성금은 피해지역 지자체와 역내 구호지원기관 등에 전달된다.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2일 경북도청을 방문해 김학홍 행정부지사에게 성금을 전달하고, 피해 주민들에게 위로의 뜻을 전했다.

박일준 상근부회장은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에 깊은 위로



의 마음을 드린다”며 “지역 주민들이 하루빨리 안정을 찾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경북은 올해 APEC 정상회의가 열리는 중요한 지역으로, 대한상의도 다양한 경제인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며 “그런 만큼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과 연대의 의미를 담아 이번 성금을 전달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전국 73개 상공회의소는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물품기부와 모금 활동을 계속 이어나갈 예정이다. 이날 기준 대한상의, 부산상의, 대

구의, 창원상의 등이 총 8억 원을 모금한 가운데 지역상의 참여와 문 의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 모금액수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대한상의는 신기업가정신협의회(ERT)를 통해 향후 경북, 영남지역 상공회의소와 협력해 ‘나무심기’, ‘산불 예방 캠페인’ 등 산불 피해 복구 및 재난 대응 강화를 위한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대한상의는 “피해가 가장 큰 경북지역을 시작으로 피해지역 지자체와 대한적십자사, 재해구호협회,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역 지부 등과 협력해 기부물품과 성금을 차례로 전달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승용 기자 lsy2665@

OCI홀딩스, 2억 기탁

OCI홀딩스(회장 이우현·사진)가 대형 산불 피해 복구 지원에 나섰다.

OCI홀딩스는 최근 영남 지역에 발생한 대형 산불 피해를 돕기 위해 긴급 구호 성금 2억 원을 기탁했다고 2일 밝혔다.

OCI홀딩스와 OCI 주식회사가 각 1억원씩 마련한 이번 성금은 (사)전국재해구호협회에 전달돼 경북·경남·울산 등 피해 지역민들을 위한 생활품 등의 긴급 구호는 물론 추후 이들의 일상복귀 지원, 산림 복원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차현정 기자 hyeon@

조현범 회장, 소통 중심 조직문화 선도

(한국엔컴퍼니그룹)

‘프로액티브 콘서트’ 확대 운영 주요 경영진 분기 최소 1회 참여

한국엔컴퍼니그룹은 전 구성원이 참여하는 소통 프로젝트 ‘2025 프로액티브 콘서트’를 그룹 차원으로 확대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그동안 프로액티브 콘서트는 조직 구성원들이 수평적이고 진솔하게 소통하는 타운홀 미팅 형식의 프로젝트로 지난 2013년 한국타이어엔테크놀로지사가 시작한 이후 10여년 간 조직별로 소규모 진행돼 왔다.

그룹 차원 행사로 확대한 올해 첫 그룹 차원 콘서트는 지난 28일 경기 성남시 판교 본사 테크노플레이스, 대전 유성구 테크노돔 등에서 임직원 4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이원 생중계로 진행됐다.



향후 박종호 한국엔컴퍼니 대표는 매달 참가하고, 안종선·이상훈 한국타이어 대표 등 계열사 대표들은 분기 최소 1회 참여하기로 했다.

조현범 회장(사진)은 이 프로젝트에 대해 “글로벌 구성원들과 수평적이고 진솔하게 소통하는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프로액티브컬처(Proactive culture)’는 조 회장의 핵심 경영 철학이다. 개인주도성, 실행중심, 현장기반을 핵심 가치로 삼으며 한국엔컴퍼니그룹의 글로벌 전략 및 디지털전환·인공지능전환(DT·AI) 등 혁신의 근간이 되고 있다는 평가다. /양성운 기자 ysw@

한화-코오롱, 미래세대 교육환경 개선

한화와 코오롱이 미래세대를 위한 친환경 인식향상과 교육 인프라 지원에 나선다.

대한상공회의소 ERT(신기업가정신협의회)는 2일 대전시 진잠초등학교를 방문해 ‘제6차 다함께 나눔 프로젝트’ 행사를 진행했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김신연 한화사회봉사단장(한화솔루션 사장), 이규호 코오롱 부회장, 정태희 대전상의 회장, 김완섭 환경부 장관, 이택구 대전시 정무경제과학부시장 등이 함께 했다.

한화는 ‘맑은학교 프로젝트’를 통해 어린이들의 건강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초등학교 실내 공기질 개선 및 환경교육 지원을 이어간다는 계획을 밝혔다. 지난 2022년 시작된

‘맑은학교 프로젝트’는 첫 해 4개교를 시작으로 4년간 총 21개교, 약 1만5000 명의 어린이들에게 미세먼지 없는 교실을 지원했다. 올해는 다함께 나눔프로젝트가 진행된 대전진잠초를 포함, 서울 양화초, 광주 금당초, 통영 용남초 등 총 6개교가 대상으로 선정됐다.

학교에 대한 지원은 태양광 발전 설비, 스마트 에어컨, 에어클린 매트, 벽면녹화 등의 시설을 설치하거나, 유휴교실을 리모델링해 미세먼지 걱정없는 ‘맑은 침,터’를 조성하는 2가지 방식으로 이뤄진다.

코오롱은 ‘에코 통통 프로젝트’을 통해 초등학교와 중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친환경 에너지 교육을 실시해 왔다.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지역 소재 학교에 대한 교육을 확대해 간다는 계획이다. /이승용 기자